

가족주의 가치관과 노부모 부양에 관한 연구

- 기혼여성의 시가와 친가에 대한 비교 -

A Study of Familism and Family Support for the Aged

이화여자대학교 가정관리학과 대학원

金 松 愛

Dept. of Home Management

Ewha Womans University

Song Ae Kim

한국교원대학교 가정교육학과

조교수 : 趙 炳 恩

Dept. of Home Economics Education,

Korea National Univ. of Education

Assistant Prof. : Myung Eun Cho

목 차

- | | |
|---|---|
| <p>I. 서 론</p> <p>II. 이론적배경</p> <p>1. 가족주의 가치관</p> <p>2. 가족주의 가치관과 노부모부양</p> <p>1) 근대화 이론</p> <p>2) 부양 의무감</p> <p>3) 부양 행동</p> <p>III. 연구 문제</p> <p>IV. 연구 방법</p> <p>1. 연구대상</p> <p>2. 측정 도구</p> <p>1) 가족주의 가치관</p> <p>2) 부양 의무감</p> <p>3) 부양 행동</p> | <p>3. 자료의 수집</p> <p>V. 조사결과 및 해석</p> <p>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성격</p> <p>2. 가족주의 가치관, 부양 의무감, 부양 행동에 관한 문항들의 일반적 경향</p> <p>3. 사회인구학적 변인들에 따른 가족주의 가치관, 부양 의무감, 부양 행동</p> <p>4. 시가와 친가 및 연령의 분류에 따른 부양 의무감, 부양 행동과의 차이</p> <p>5. 시가와 친가에 따른 사회인구학적 변인, 가족주의 가치관, 부양 의무감, 부양 행동의 인과적 관계</p> <p>VI. 논의 및 결론</p> <p>참고문헌</p> |
|---|---|

= ABSTRACT =

The aim of present study was to explore there were relationships among familism (collectivism vs. individualism), filial responsibility, and helping behavior of the middle-aged women towards parents-in-law and their own parents.

The respondents were 552 married women in their thirties, forties and fifties.

Ok Sun-hwa(1989)'s, Seelbach(1978)'s, Cicirelli(1983)'s and Chang Sun-ju(1989)'s scale were utilized to tap the familism, filial responsibility, and helping behavior of the middle aged daughter and daughter-in-law respectively.

The major results of the study were summarized as follows :

1) Married women perceived relatively high levels of familism and filial responsibility and a moderate level of helping behavior towards their parents and in-law parents as well.

Among the demographic variables, education, income and age of the married daughters and daughters-in-law were found to be correlated to both familism and filial responsibility of support for their parents. Also, education and age were negatively related to helping behaviors.

2) Married women reported similar levels of filial responsibility of support towards parents in law and their own parents. However significant difference were found between the amounts of helping behavior towards parents-in-law and their own parents.

3) Regression analysis revealed that living arrangement(living with parents or not), the level of filial responsibility, and education level proved to be significant predictors on the helping behavior towards parents-in-law explaining 46% of the total variance.

On the other hand, filial responsibility, living pattern, and income level of the parents were powerful in predicting helping behavior towards their own parents accounting 24% of the total explained variance.

4) A path analysis model indicated that while educational level and living arrangement influenced directly to helping behavior toward parents-in-law, living arrangement, income level of parents and familism were directly associated with helping behavior for parents of their own.

Therefore, helping behavior of the middle aged women was significantly mediated by familism and filial responsibility for support towards both parents-in-law and their own parents.

I. 서 론

가족은 전통적으로 노인에게 중요한 부양과 보호의 근원이었다. 그러나, 60년대와 70년대에 걸쳐 밀어닥친 산업화, 도시화, 인구의 고령화, 그리고 핵가족화로 노부모 부양문제는 필연적으로 제기 되는 현대가족의 큰 문제점 중의 하나가 되었다.

사회의 근대화 과정에서 가족구조의 외형은 혈연중심의 확대가족에서 부부중심의 핵가족으로 변화되었고, 부모와의 관계보다는 부부관계, 자녀 관계가 더욱 강하고 친밀한 관계로 발전되었다.

또한 가족을 다른 집단보다 우선시 하며, 개인보다는 가족을 위주로 하는 집합주의적 가족주의 가치관에서 개인중심적 개인주의로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가치관의 변화로 인해 현대에 살고 있는 노인들은 자신들의 성장하고 생활해온 전통적인

생활양식과 가족주의 가치관에 익숙한 반면에 자녀들은 개인중심주의 가치관에 익숙해져 있으므로 부모와 가치관의 차이로 인한 노후부양의 갈등을 초래 할 수가 있다.

지금까지 노부모부양 연구는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연구내용은 주로 부양의식과 노인의 생활만족도에 관한 것들로서 가족주의 가치관과 부양의식이 부양행동에 끼친 영향에 대한 연구는 별로 많지 않다. 더우기 부양책임이 아들에게만 주어지는 전통적 가족주의 가치관에서 아들, 딸이 다 포함되는 새로운 가치관으로 변화됨으로써 딸이 친가부모를 부양할 수 있게 된 점을 고려한 연구가 부족하다.

노인들은 가족중에서 주로 기혼 여성인 며느리나 딸에게 도움을 받고 의존하므로 기혼여성들은 노부모 부양에 있어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또한 우리나라에서 결혼하기 이전의 자녀들이 완전히 독립하지 않고 부모에게 여전히 의존하고 있으므로 중년기의 기혼여성들은 자녀의 양육에도 깊게 관여하면서 동시에 노부모의 부양을 수행해야 한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기혼여성들은 부양행동의 부담이 크며 부양의 어려움을 유발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기혼여성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실질적으로 노부모부양을 수행하고 있으며 사회의 어떤 구성원 보다도 직접적인 부양의 책임과 의무와 행동의 규범을 내면화한 기혼여성을 대상으로 시가와 친가 및 연령별로 구분하여 변화하는 기혼여성의 가족주의 가치관, 부양무감이 노부모에 대한 부양행동에 끼친 영향을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 노인복지정책의 방향을 설정하는데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가족주의 가치관

가족주의 가치관은 전통적인 인간관계가 규범으로 간주되어 명확한 개념정의가 어려우나 옥선화(1989)는 가족주의 가치관이란 가족을 다른 집단보다 우선시하며 부계가족원리를 지지하고 가족집단에 대한 태도가 친척집단에 까지 확산되는 것이라고 하였다.

최재석(1975)은 가족주의 일체의 가치가 가족 집단의 유지, 지속, 기능과 관련을 맺어 결정되는 가족집단의 단결과 영속화, 그리고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려는 가족구성원들의 꾸준한 집단적 노력이라고 하고 한국인의 가족생활에 대한 전통적 가치의식의 특징을 1) 가족내부의 엄격한 신분서열존재, 2) 친자중심의 가족구성, 3) 지배와 복종의 종속적인 관계로 유지되는 친자관계, 4) 상·하의 신분서열 식으로만 유지되는 가정의 화목, 5) 초시간적 집단인 집의 유지, 존속을 위한 가족 개인의 독립, 자유, 발전을 배척하는 점으로 개인 보다는 집을 위주로 한다고 하였다.

임희섭(1986)도 한국의 전통적 가치체계의 중심적 특성은 집합주의의 가치지향으로서 가족,

지역공동체, 국가공동체등 여러수준의 집합체 가운데에서도 가족이 가장 중요한 집합체로 강조되는 가족주의적(Familistic) 집합주의라고 했다.

육영수(1982)는 한국의 가족주의는 자신의 친족 집단밖의 외부인은 적의의 대상으로 인식하며 자기라는 개인 개념은 가족개념속에 소멸되어 버리는 현상을 그 기본적 패턴으로 정하고 있다고 했다.

Burgess와 Locke(1945), Heller(1970)는 개인주의와 대비되는 집합주의의 기준으로 가족주의를 정의 하였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많은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일치하는 가족주의 가치관이란 가족에게 우선성을 부여하는 가족중심적 집합주의의 규범원리로 인식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가족주의 가치관을 가족중심적 집합주의의 규범원리로 접근하고자 하며, 가족주의 가치관이란 가족우선성, 부계가문의 영속화, 부모공경의식, 형제자매 및 친척간 사회경제적 유대의식에 대한 총체적인 가족주의 가치관(옥선화, 1989)을 의미한다고 본다.

가족주의가치관은 조선초기에서 일제초기까지 사회를 지배하는 규범으로 남아 있었으나 근대화, 도시화, 사회현상의 다원화로 가족은 소비생활의 단위로서 핵가족화 되었고, 부부간의 역할분담을 기반으로 자녀의 사회화를 수행하는 전문화된 집단(이효재, 1971)으로 변화하였으며 여성들의 사회진출과 젊은 가족구성원의 도시집중, 가장의 직업이동, 자유결혼등으로 가족주의 가치관의 양상이 크게 변화하게 되었고 전통적 가족제도의 생활기반을 약화 시켰으며 가족관계에 많은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다.

이러한 사회 변화에 따른 가족주의 가치관의 변화는 그러한 변화를 받아들이는 속도가 성별, 거주지역, 교육수준, 소득, 연령, 종교등에 따라 달라 전통성과 근대성이 공존하는 상태에서 많은 혼란을 주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전통성과 근대성이 혼재하는 문화적 이중구조(Dual structure)”로서 진단하기도 하고, “비동시적인 것의 동시적 공존현상(the contemporarion-contemporenaous)” (임희섭, 1986)으로 표현하기도 한다.

가족주의 가치관의 변화를 다룬 실증적 연구(유영주, 1978; 옥선화, 1989; 정현희, 유영주, 1978; 문숙재, 임정빈, 1988; 김일명, 1988; 김명자, 1980; 이연주, 1984)를 보면, 핵가족화의 영향으로 근대적인 경향으로 나타나나 전통성과 근대성의 공존의 양상을 보이고 있고 가족관계의 영역별로 그 영향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가족주의 가치관은 경제적 위치, 나이, 성, 교육수준, 종교등의 변인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전반적인 가족주의 가치관에 관한 연구는 근대화에 따른 가족주의 가치관이 전통적인 것에서 근대적으로 즉 가족중심적 집합주의에서 개인중심적 개인주의로 변화해감을 말해주나 가족주의 가치관이 어떻게 가족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지는 밝히지를 않았다.

2. 가족주의 가치관과 노부모 부양

1) 근대화 이론(modernization theory)

사회적 변화에 따른 가족관계와 노인의 위치의 변화를 Cowgill과 Holmes(1972)는 근대화 이론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 이론에 의하면 근대화라는 사회적 변화가 노인의 지위를 하락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노인의 지위저하를 설명하는 근대화 이론을 중심으로 가족주의 가치관과 노부모 부양에 관한 노인문제를 분석하고자 한다.

근대화가 노인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노인 인구가 증가되고 평균수명이 길어지며 노인의 지위는 하락되고 역할은 줄어들며 은퇴가 제도화된다. 또한 가족형태는 핵가족화되고 노후부양은 가족에서 정부로 이양되는 경향이 있으며 권력과 지도자 역할을 하는 노인층의 수가 줄어들고 개인주의적인 가치관의 영향으로 노인의 위치는 약화된다고 하였다.

최성재(1984)는 한국에 있어서 노화에 연관된 근대화의 특징을, 1) 직업적 역할상실과 그의 관련된 역할의 상실, 2) 노인의 동거형태의 핵가족화, 3) 세대간의 교육수준의 차이, 4) 세대간의 가치체계의 차이로 보았다.

근대화 이론은 지위하락의 인과관계를 설명하고

있을뿐이지 노인문제로 연결까지는 주장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노인의 지위가 약화된 것이 노인문제의 전반적인 원인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근대화 이론의 기본적인 설명의 틀이 노인문제로 연결시키는 것은 가능하다(장인협, 최성재, 1987).

따라서 노인문제를 현대화의 요인에 의해 초래된 것으로 보고 노인문제를 근대화 이론의 틀을 이용하여 설명하면, 1) 긴 여가시간, 2) 역할상실, 3) 수입절감, 4) 건강 약화, 5) 부양 및 보호문제, 6) 사회적 및 심리적 고립과 소외로 대별되는 한국사회의 노인문제를 초래하는 것으로 설명한다.

근대화 이론은 산업사회의 노인문제의 원인을 이해하는데 가장 설득력 있는 이론이지만 주로 이론의 확일성과 보편성 및 자민족중심적(ethnocentric)이라고 비판된다(Tipps, 1973; Williamson & Powell, 1982).

장인협, 최성재(1987)는 이러한 근대화 이론의 단점을 세가지로 요약하고 있다. 첫째, 근대화 이전부터 노인의 지위가 낮았던 사회도 있었다. 둘째, 후기산업사회에서 노인의 세력, 지위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근대화에 따른 계속적인 하락이라는 설명에는 문제가 있다. 셋째, 근대화의 부정적인 영향만을 고려했고 가족제도의 유지, 경로외의 가치관유지, 사회복지제도의 발전등 근대화 과정에 따른 노인지위의 상승적 요인들을 고려하고 있다. 즉 후기 산업사회에 들어서면서는 노인의 지위가 상승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하며 그 요인들은 가족제도, 경로외의 가치관유지, 사회복지제도의 발전이라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가족주의 가치관은 발전된 사회(핀란드, 일본, 독일등)에 대한 경험적 연구결과 확대된 가족체계 및 혈족과 가족상호작용의 패턴이 사회의 근대화와는 상관없이 비교적 안정된 채로 남아 있으며(Palmore, 1974), 근대화된 일관된 경험에도 노출은 노인에 대한 존경을 규정하는 규범의 내면화는 일관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하였다(Bengtson & Dowd, 1975).

Palmore와 Manton(1974)은 근대화와 노인의 지위간에서 곡선적관계를 발견하였는데, 더 근대화된 사회에서는 지위만 낮아진 것이 아니고, 덜

개발된 나라보다 가장 발달된 나라에서 노인의 지위가 약간 더 높다는 것이다. 즉 가장 진보된 사회에서 노인의 지위가 향상되었음을 암시하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이것은 전반적인 인구의 고령화 현상으로 노인문제가 사회전체의 문제임이 인식되어 제반 사회정책으로 노인의 지위를 보장해 주는 제도적 장치가 발달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보여진다.

따라서 근대화 현상에 따른 노인의 위치는 직선적으로 하락되지 않고 그 사회의 가치관과 사회보장제도에 의해서 노인의 위치가 하락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경우 사회보장제도가 확립되지는 않았으나 전통적인 유교사상에 의한 효 개념의 고취로 부모부양에 대한 가치관은 고양되어 온 것으로 보인다.

2) 부양 의무감

가족주의 가치관은 개인의 복지보다는 가족(부모, 형제, 자매, 자녀, 혈연관계를 포함)에게 우선성을 부여하는 집합주의 규범원리이므로 본 연구에서는 노부모에 대한 부양의식을 따로 보고자하였다. 근대화에 따라 가족주의가치관은 약화되었으나 노부모에 대한 부양의식은 비교적 강하게 남아있을것으로 사료되기 때문이다.

자녀로서의 의무감이란, 노부모의 욕구를 충족시켜야 한다는 성인자녀의 의무를 말하며 보호, 부양, 경제적 지원과 관련되며, 부양 의무감의 예로서는 부모와의 접촉, 재정적 원조, 동거, 정서적 도움, 부모의 일상적인 욕구를 채워 주기위한 도움등이 있다(Seelbach, 1978).

근래에와서 동거형태가 많이 변하고 있으며, 장남이외에 차남과의 동거 또는 딸에 의한 동거율이 늘어나고(김해운, 1977), 장남이 노부모의 부양을 책임져야 한다는 의식은 많이 약화되고 있으나 전반적인 노부모에 대한 부양의식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인구보건원, 1985 ; 서병숙, 1988).

예를들면 우미경(1988)의 기혼자를 대상으로 노후부양의식에 대한 연구결과 기혼자들의 노인 부양 책임의식이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교육수

준이 높을수록 자신이 직접 부모의 몹시중을 들겠다는 비율이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영하(1975)의 노후부모부양 의식조사에서 노후는 자녀의 부양을 절대 의무시 하나 부모가 경제력이 없으면 부양을 한다고 하여, 노후생활에 대한 책임은 노인자신 또는 국가나 사회의 책임이고 자녀의 책임이 아니라는 의식도 상당히 높은 비율로 부모부양의식이 점점 감퇴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몹시중 부양에 있어서 부모가 병약하거나 누운상태로 시중들 사람이 없을 경우 직접 자신이 시중든다는 부양책임의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서병숙, 1986).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노인부양의식의 연구에서도 부양의식이 비교적 높게 나타나고 있다

고등학생 및 대학생을 대상으로 노인부양의식에 관한 임인혜(1987)의 연구에서는 고등학생의 노인부양의식이 대학생에 비하여 높았고, 여학생과 출생순위가 가장 위인 경우, 부양의식이 가장 높았다.

허 훈(1988)의 대학생을 대상으로한 노부모에 대한 가족부양의식에 관한 연구에서 부모가 연로하게 될때, 부양책임의식에 대해서 자녀가 부양해야 한다고 응답한 사람이 93.6%로 높았고, 고학년이 될수록 부모가 경제력이 없으면 향후 부모님 부양에 자녀가 책임져야 한다는 의식이 높았다.

이와같은 결과는 아마도 부양행동을 본것이 아니고 부양의식만을 보았고 실제 부양을 하지 않는 연령층이므로 부양의식이 비교적 높게 나온 것으로 보인다.

임춘희(1987)는 분거한 장남부부를 대상으로 동거보조형, 동거독립형, 별거보조형, 별거독립형의 4가지로 유형화 하여 장남부부의 부모에 대한 의식에서 남편인 장남의 경우 동거 보조형의 부양의식을 가장 많이 갖고 있으며, 만며느리인 부인의 경우 별거 보조형의 부양의식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송현애(1986)의 연구에서도 의무감이 높을수록 노모를 더 많이 부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로서의 의무감은 딸보다 아들 특히 장남이

높으며, 서울에 거주하고 어머니와 동거하며 대졸이상의 학력에 사무직, 관리직, 전문직을 가진 자녀에게서 높았다. 또한 의무감이 적을수록 노모를 도와주고 난 후 부정적인 감정을 더 경험한다고 했다.

이러한 결과를 볼때 우리나라는 아직도 남성이 전통적인 가족주의 가치관이 강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연구가 주로 청년기와 남녀 대상으로 한 연구이며, 가정에서 노부모 부양의 일차적인 책임을 담당하고 있는 기혼여성을 대상으로, 특히 딸의 친정에 대한 부양 의무감을 같이 본 연구는 별로 없다.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관습으로 노부모부양은 자녀의 책임이었고 특히 장남이 부양책임을 전담하였으나 핵가족화에 따라 딸도 부모와 접촉할 수 있고 부양할 수 있게 되었다. 혈연중심의 부계사회의 영향으로 시가에만 국한 된 것에서 친가부모도 부양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중년기 세대의 며느리, 딸로서 직접적으로 노부모 부양을 담당하는 기혼여성에 대한 부양 의무감과 그에 따른 부양행동을 보는 것이 필요하다.

3) 부양행동

노부모에 대한 부양행동은 경제적, 정서적, 서비스 부양의 차원으로 볼 수 있다(김태현, 1981; Lopata, 1978).

부양행동을 가족내 기혼여성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경제적, 정서적, 서비스적 행동 차원에서 살펴보기로 하면,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경제적 부양을 자녀가 담당하고 있으며 특히 장남에 의한 부모부양체계가 계속 유지되고 있다(김태현, 1981; 최신덕; 1982; 이효재, 지 순, 박민자, 1979).

정서적 부양은 노인의 감정과 정서를 이해하고 따뜻하게 대해주고 감싸주고 위로해 주고, 또한 외로움과 고독, 불안을 달래주는 인격적, 정서적 욕구의 충족을 제공하는 부양이다. 미국의 경우 Lopata(1978)는 딸이 더 정서적 지지를 제공하는데 차이가 있음을 지적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출가한 딸에의하여 정서적지원을 받으리라 예상

된다.

우리나라는 노부모의 서비스 부양도 거의 동거하는 자녀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노인들이 동거를 희망하는 이유중 몸시중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인 경우가 소득계층에 관계없이 가장 큰 이유가 되고 있다(이옥재, 1980).

기혼자녀의 부모 부양에 관한 송현애(1986)의 조사결과를 보면 부모와 동거하는 자녀가 33%이며, 정서적, 경제적, 서비스 부양을 포함하는 부모부양에 있어서는 연령이 많고 자녀가 증가할수록, 자녀로서의 의무감과 어머니의 의존도가 높아질수록, 그리고 거주지상의 근접과 접촉이 현재의 부양행동을 증가시킬수 있다고 한다.

Bengtson(1976)은 도움행동을 세대간 유대의 모델로 제시한 거주지역의 근접성, 의무감에서 성인자녀가 의무감을 더 많이 느낄때, 또한 성인자녀가 가까이 살고 딸인 경우 도움행동이 더 많아질 수 있다고 했다.

Lang과 Brody(1983)는 적어도 1인 이상의 성인딸을 가진 중년여성이 노부모를 도우는 양과 정도에 대하여 중년여성의 연령, 배우자 유무, 직업유무, 동거여부별로 연구한 결과 중년여성의 연령이 많고, 노부모와 동거할수록 도움을 주는 정도가 많았으며, 배우자가 있고, 취업중인 중년 여성은 도움을 주는 정도가 적음을 밝혔다.

반면에 Stoller(1983)의 연구는 여성의 직업은 부양행동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함으로써 기존 연구와 일치하지 않는다. 직업가진 여성도 그들의 여가시간을 줄임으로서 작업시간과 부양행동을 그들의 책임에 대처해가고 있다고 한다.

Stoller(1983)는 성인자녀의 도움의 양은 노부모들의 욕구수준에 따라서 변한다고 하였다. 즉 도움의 양은 활동이 불편한 노인에게 더 높았고, 노부모의 결혼상태에 따라 달랐는데 두분이 생존해 계시면 도움의 양은 적었다고 했다.

위의 실증적 연구를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경우 경제적, 정신적, 서비스적 부양을 아들 특히 장남이 수행하였고 미국의 경우 딸이 정신적, 서비스적 부양에 주로 참여 하였으며, 부모의 결혼상태, 부모의 건강상태등의 욕구수준에 의해 영향을 받고

부양 의무감도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성우 비복 상남과 농거함으로서 부양을 받았으나 실제적으로 부양행동을 수행하는 것은 며느리로 생각되어질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혼여성의 시가, 친가에 대한 노부모 부양의무감을 살펴보고, 나아가 부양의무감과 부양행동과의 관계를 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기혼여성에 초점을 둔 이유는 기혼여성들은 노인들의 보호에 그들의 변화하는 역할이 끼치는 영향력을 이야기 하기에 가장 좋은 위치에 있고, 보호의 제공자에서 가장 큰 몫을 차지하기 때문이다. 노인들은 무엇보다도 며느리, 딸인 여성에게 의존한다.

III. 연구문제

본 연구에서는 노부모부양에 대한 기혼여성의 가족주의 가치관, 부양 의무감, 부양행동에 사회인구학적 변인이 영향을 미치는가를 알아보고 아울러 가족주의 가치관, 부양 의무감, 부양행동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기혼여성의 가족주의가치관 수준과 시가, 친가에 대한 부양 의무감, 부양행동의 수준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사회인구학적 변인들(연령, 종교,

자녀수, 교육수준, 직업, 소득, 출생순위, 며느리 순위, 동거여부, 부모의 결혼상태, 부모의 건강상태, 부모의 수입)에 따른 가족주의 가치관, 부양 의무감, 부양행동은 차이가 있을 것인가?

〈연구문제 3〉 시가와 친가 및 연령의 분류에 따른 부양 의무감, 부양행동은 차이가 있을 것인가?

〈연구문제 4〉 시가와 친가에 따라 사회인구학적 변인, 가족주의 가치관, 부양 의무감, 부양행동은 어떠한 관계가 있을 것인가?

이상의 연구문제를 토대로 설정한 연구모형은 다음과 같다.

IV. 연구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시가와 친가의 노부모 두분중 한분이라도 살아계신 30대, 40대, 50대의 기혼여성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기혼여성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한 이유로는 기혼여성들은 가정에서 실제적인 노부모의 부양과 보호의 제공자로서 큰 몫을 담당하고 있으며 또한 우리나라 전통적인 가부장제에서 친정과의 접촉이 별로 없으나 근대화에 따른 핵가족화로 인하여 친정과의 접촉이 빈번하게 됨에 따라 친정을 본 연구 대상에 포함시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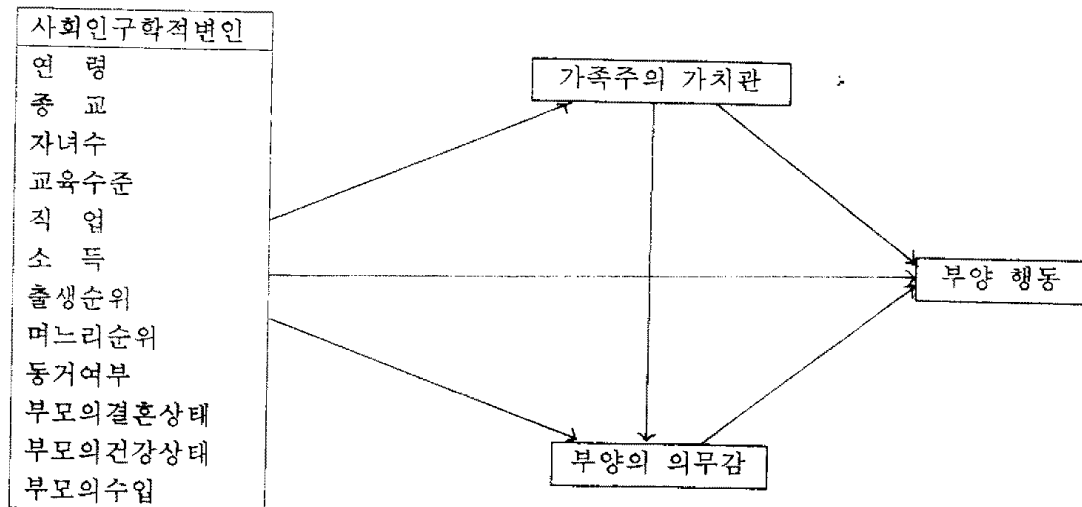


그림 1. 연구모형(시가, 친가).

상, 중, 하류를 대표할 수 있다고 생각되어지는 서울시내 강서구(2동), 강남구(3동), 관악구(2동), 송파구(3동), 강동구(2동)의 아파트와 단독 주택을 임의로 선정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연령별 대상자는 30대 260명, 40대 146명, 50대 146명으로 총 552명 이었다.

2. 측정 도구

측정도구로 사용된 질문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가족주의 가치관

본 연구의 가족주의 가치관 측정문항은 옥선화(1989)가 작성하여 사용한 가족주의 가치 척도로 실시하였다.

옥선화(1989)의 가족주의가치관 측정도구는 총 25문항으로 구성되었는데 예비조사를 실시한 결과 “결혼후 아들을 낳지 못했다면 양자를 들여서라도 아들을 두어야 한다”. 와 “미혼, 형제자매의 생활비는 장남이 부여한다.” 등의 무응답이 많은 5문항은 측정도구에서 제외 되었다.

각 문항은 “매우 반대”에 1점, “약간 반대”에 2점, “보통이다”에 3점, “약간 찬성”에 4점, “매우 찬성”에 5점을 주어 모든 문항은 5점 리커트형 척도로 평점되었다.

따라서 25문항에서 5문항을 제외한 20문항을 최종적인 문항으로 선택하여 신뢰도를 산출한 결과 Cronbach's α 는 .79로 나타났다.

2) 부양 의무감

기혼여성의 노부모 부양에 대한 부양 의무감을 측정하기 위하여 Seelbach(1978)가 사용한 6개 문항으로 구성된 자녀로서의 의무감 기대척도(Filial Responsibility Expectance Scale)를 번안, 수정하여 사용하였으며, 나머지 4 문항은 임춘희(1987)의 연구에서 사용된 문항들 중에서 적절하다고 평가되는 문항들을 포함하여 본 연구자가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총 10문항으로 각 문항은 “매우 반대”에 1점, “약간 반대”에 2점, “보통이다”에 3점, “약간 찬성”에 4점, “매우 찬성”에 5점으로 평점척도로 이루어

졌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부양 의무감이 높은 것을 나타낸다.

부양 의무감에 대한 측정도구의 신뢰도는 $\alpha=.83$ 으로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3) 부양행동

본 연구에서 사용된 기혼여성의 노부모부양에 대한 부양행동을 측정하기 위한 측정도구로는 Cicirelli(1983), 장선주(1989)에서 사용된 문항들 중에서 적절하다고 평가되는 문항들을 포함한 총 10문항을 본 연구자가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에 1점, “별로 그렇지 않다”에 2점, “가끔 그렇다”에 3점, “그런 편이다”에 4점, “항상 그렇다”에 5점으로 평점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부양행동을 많이하는 것으로 나타낸다.

부양행동에 대한 측정도구의 신뢰도는 $\alpha=.83$ 으로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3. 자료의 수집

본조사를 실시하기 전인 1990년 8월 20일부터 8월 27일까지 서울시 송파구 아파트의 기혼여성 50명을 대상으로 면접질문법에 의한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예비조사 결과 신뢰도가 낮거나 부적절한 문항은 제외시키고 질문지를 재구성하여 본 조사에 사용하였다.

본 조사는 1990년 8월 29일부터 9월 16일까지 강서구(2동), 강남구(3동), 관악구(2동), 송파구(3동), 강동구(2동)의 아파트 및 단독주택의 30대, 40대, 50대의 기혼여성 73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실시방법은 아파트 및 단독주택의 통장, 반장을 통하여 본 연구에 부합되는 기혼여성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간단한 설명과 함께 질문지를 배부한 후 본인이 직접 그 자리에서 회수하거나, 통장, 반장을 통한 것은 일주일 후 회수하는 방법을 택하였다.

질문지는 모두 730부를 배부하여 그중 85%인 650부를 회수하였고 그 중에서 부적절하게 응답한 것을 제외한 총 552부 만이 본 연구의 분석에 사용되었다.

V. 조사 결과 및 해석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성격

본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성격은 (표 1)과 같다. 연령은 30대가 47.2%로 가장 많았고, 40대, 50대가 각각 26.4%로 나타났다.

종교는 기독교가 35.7%, 불교 25.4%, 천주교 14.9%, 무교가 24.0%로 기독교가 가장 많았다.

자녀수는 2명이 48.4%로 가장 많았고, 3명이 25.0%, 1명 이하는 16.1%, 4명 이상이 10.5%로 나타났다.

교육수준은 중졸이 20.1%, 고졸이 42.8%, 대졸이상이 39.1%로 분포되었다.

가계의 소득은 50~100만원 미만 43.3%, 100~150만원이 33.3%, 50만원 이상이 23.4% 순으로 분포되었다.

직업유무는 비취업주부가 83.7%, 취업주부가 16.3%로 나타났으며 이는 비취업 주부의 수가 취업주부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분포되었다.

동거여부는 별거가 80.6%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동거는 19.4%로 나타났다.

부모의 결혼상태는 두분계심이 45.3%, 어머님만 생존이 45.3%로 나타났으며 아버님만 생존은 9.4%로 나타났다. 이것은 노령화로 인한 평균연령의 상승으로 인해 고령으로 갈수록 여성노인의 수가 압도적(여성노인 : 남성노인의 성비가 100 : 32.6) (윤종주, 1988) 이어서 어머님만 생존한 경우보다 훨씬 적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며느리 순위에서 첫째 며느리가 38.8%, 둘째 며느리가 27.6%, 둘째며느리이하가 23.4%, 외며느리가 11.1%로 나타났다.

부모의 건강상태는 24.6%, 가끔아픔이 49.3%, 자주아픔이 20.3%, 항상 아픔이 5.8%로 가끔 아

표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성격

변 인	집 단	빈 도 (명)	퍼센트 (%)	변 인	집 단	빈 도 (명)	퍼센트 (%)
연 령	30대	260	47.2	출생순위	차녀	177	32.1
	40대	146	26.4		차녀이하	110	19.9
	50대	146	26.4		외동	51	9.2
종 교	기독교	197	35.7	며느리순위	첫째며느리	210	38.8
	불교	140	25.4		둘째며느리	152	27.5
	천주교	82	14.9		둘째며느리이하	129	23.4
	무	133	24.0		외며느리	61	11.1
자녀수	1명이하	89	16.1	동거여부	별거	445	80.6
	2명	267	48.4		동거	107	19.4
	3명	138	25.0	부모의결혼상태	두분계심	250	45.3
	4명	58	10.5		아버님만생존	52	9.4
교육수준	중졸이하	111	20.1	어머님만생존	250	45.3	
	고졸	225	42.8	부모의건강상태	아주건강	136	24.6
	대졸이상	216	39.1		가끔아픔	272	49.3
직업유무	비취업주부	462	83.7		자주아픔	112	20.3
소 득	취업주부	90	16.3	항상아픔	32	5.8	
	50-100만원미만	239	43.3	부모의수입	없다	241	43.7
	100-150만원미만	184	33.3		겨우유지	93	16.8
150만원이상	129	23.4	적당하다		136	24.6	
출생순위	장녀	214	38.8	여유있다	82	14.9	

품이 가장 두드러진 비율을 보였다.

부모의 수입이 없다 43.7%, 겨우유지 16.8%, 넉넉하다 24.6%, 여유있다가 14.9%로 나타났다.

2. 가족주의 가치관, 부양 의무감, 부양행동에 관한 문항들의 일반적 경향

〈연구문제 1〉 기혼여성의 가족주의 가치관 수준과 시가, 친가에 대한 부양의무감, 부양행동의 수준은 어떠한가?

가족주의 가치관에 관한 문항중 평균이 가장 높은 문항은 “친척간에 화목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M=4.64), “결혼한 형제의 집에 경조사가 있을때, 직접 일에 참여하여 도움을 주어야 한다.”(M=4.21), “형님이나 누님은 동생을 아끼고 도와주며 동생은 그분들을 따르고 받아들여야 한다.”(M=4.18) 문항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족주의 가치관인 친척관계를 중시하는 집합주의가 비교적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반면, 평균이 가장 낮은 문항은 “조상의 제사를 4대조(고조부모)까지 지내는 것은 자손의 당연한 도리이다”(M=2.32), “아들이 없어서 대가 끊기는 것은 우리가족 뿐만 아니라 가문전체의 불행이다.”(M=2.40), “결혼배우자는 부모가 정해진 대로 따라야 한다.”(M=2.47) 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족의 화목을 중요하게 여기지만, 조상숭배나, 아들을 중시하는 가문위주의 연속성과 부모에게 절대적으로 복종하는 의식에 대한 가치관은 가족 우선성의 가족주의 가치관에서 벗어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부양 의무감에 관한 10문항중 평균이 가장 높은 문항은 시가 및 친가 모두 “나의 자녀로 하여금 부모님을 찾아뵙도록 한다.”(M=4.35, M=4.30), “부모를 모시거나 편찮은 부모를 돌보는 일은 다른 사람이나 기관에 의탁하지 말고 자녀가 해야한다.”(M=4.03, M=4.40)의 문항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낮은 문항은 “노후의 경제적 책임은 개인이나 국가보다는 자녀에게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M=3.02, M=3.37), “자녀는 결혼을 해서도 되도록이면 부모와 가까운 곳에 살아야 한다.”(시가, M=3.44) 문항순으로 나타났다. 즉, 산업화,

핵가족화로 가족주의가치관이 변화되어도 아직까지는 부모에 대한 효사상으로 인하여 부양 의무감이 높은 것으로 생각된다.

부양행동에 관한 10문항중 시가의 경우 평균이 가장 높은 문항은 “부모님이 친척이나 친구분들을 모시고 오실때 잘 대접해 드린다.”(M=3.83), “편찮으실 때 간호해 드린다.”(M=3.54)인 반면, 낮은 문항은 “부모님을 적어도 1주일에 1번은 찾아 뵙는다.”(M=2.84), “시장보기, 의복손질, 반찬, 방청소 등을 해 드린다.”(M=2.97) 순으로 나타났다.

친가의 경우도 비슷한 경향으로 나타나 높은 문항은 “부모님이 친척이나 친구분들을 집에 모시고 오실때 잘 대접해 드린다.”(3.60), “부모님께 문제가 생겼을때 조언해 드린다.”(M=3.35)로 나타났다으며, 낮은 문항은 “시장보기, 의복손질, 반찬, 방청소 등을 해드린다.” “부모님을 적어도 1주일에 1번은 찾아 뵙는다.”(M=2.40) 순으로 나타났다.

3. 사회인구학적 변인들에 따른 가족주의 가치관, 부양 의무감, 부양행동

〈연구문제 2〉 사회인구학적 변인들(연령, 종교, 자녀수, 교육수준, 직업, 소득, 출생순위, 며느리 순위, 동거여부, 부모의 결혼상태, 부모의 건강상태, 부모의 수입)에 따른 가족주의 가치관, 부양 의무감, 부양행동은 차이가 있을 것인가?

표 2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연령에 따라 가족주의 가치관, 부양 의무감, 부양행동을 분석한 결과 가족주의 가치관, 부양 의무감, 부양행동은 모두 30대의 경우 더 낮게 나왔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교육수준에 따라 가족주의 가치관, 부양 의무감, 부양행동을 분석한 결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Duncan Test 결과, 고졸이상의 집단이 다른 집단보다 가족주의 가치관이 낮게 나타났으며, 부양 의무감, 부양행동은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부양 의무감이 낮으며 부양행동을 적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Duncan Test 결과, 중졸 집단이 고졸, 대졸 이상의 집단보다 가족주의 가치관, 부양 의무감, 부양행동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사회인구학적 변인들에 따른 가족주의 가치관, 부양 의무감, 부양행동에 대한 일원변량분석 (N=552)

변 인	구 분	가족주의가치관				부양 의무감			부양행동		
		빈도 (명)	평균	F.t	D	평균	F.t	D	평균	F.t	D
연 령	30대	260	3.17		B	3.60		B	2.95		B
	40대	146	3.39	10.2 ^{***}	A	3.86	6.41 ^{**}	A	3.13	6.40 ^{**}	A
	50대	146	3.21		B	3.72		AB	3.18		A
교육수준	중졸이하	111	3.47		A	4.16		A	3.83		A
	고졸	125	3.23	7.41 ^{***}	B	3.71	15.90 ^{**}	B	3.22	22.9 ^{**}	B
	대졸이하	216	3.15		B	3.53		B	3.05		B
소 득	50-100만원	239	3.26		BA	3.81		A	3.28		A
	100-500만원	184	3.30	2.85	A	3.74	5.20 ^{**}	A	3.24	0.22	A
	150만원	129	3.12		B	3.48		B	3.21		B
자 녀 수	1명이하	89	3.17		B	3.67		B	3.15		B
	2명	267	3.23	2.50	B	3.62	3.10 [*]	B	3.13	5.81 ^{***}	B
	3명	138	3.21		B	3.82		BA	3.43		B
	4명이상	58	3.50		A	4.03		A	3.70		A
부모의 결혼상태	두분생존	250	3.21		A	3.64		A	3.15		A
	어버님만 생존	52	3.50	3.21 [*]	A	3.93	2.06	A	3.20	3.31 [*]	A
	어머님만 생존	250	3.22		A	3.75		A	3.38		A
부모의 건강상태	아주건강	136	3.33		A	3.66		A	3.04		A
	가끔아픔	272	3.26	2.32	A	3.73	1.83	A	3.04	0.94	A
	자주아픔	112	3.14		A	3.72		A	3.10		A
	항상아픔	32	3.25		B	3.46		B	3.23		A
부모의 수입	없다	241	3.23		A	3.81		A	3.50		A
	겨우유지	93	3.32	2.84	A	3.86	4.57 ^{**}	A	3.14	8.47 ^{**}	BA
	적당하다	136	3.18		A	3.46		B	3.06		B
	여유있다	82	3.28		A	3.65		BA	2.99		B
종교	유	419	3.29			3.77			3.27		
	무	133	3.12	2.35 [*]	A	3.54	2.37		3.23	0.30	
직업	유	29	3.54			4.39			3.01		
	무	462	3.23	-3.82 ^{***}		3.63	-6.20 ^{***}		3.40	-2.94 ^{**}	
출생순위	장녀	265	3.30			3.80			3.32		
	차녀이하	287	3.19	1.84		3.63	2.07 ^{**}		3.19	1.43	
며느리 순위	첫째	271	3.24			3.71			3.37		
	둘째이하	281	3.24	0.04		3.71	0.01		3.14	2.56 [*]	
동거여부	별거	445	3.19			3.62			3.03		
	동거	107	3.39	2.85 ^{**}		3.97	-3.71 ^{***}		3.91	10.02 ^{***}	

*P<.05 **P<.01 ***P<.001 D : Duncan's grouping

이러한 결과는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가족주의 가치관이 낮게 나타난다고 한 옥선화(1989)와 근대적인 가치지향을 보인다고 한 김일명(1988)과 개인주의 가치성향을 나타낸다고 한 문숙재, 임정빈(1988) 및 직접 부모의 몹시중 드는 의식이 줄어든다는 우미경(1988)의 연구와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소득의 경우 가족주의 가치관, 부양행동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부양 의무감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즉 소득수준이 많을수록 부양 의무감은 낮으며, 소득이 150만원 이상의 집단이 50-100만원 집단이나 100~150만원 집단보다 부양 의무감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에서 보면 근대화가 됨으로서 노인의 지위저하를 예측할 수 있겠다.

자녀수에 따라 부양의 의무감, 부양행동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특히 부양 의무감은 자녀가 4명 이상인 경우 1명, 2명인 집단과 차이를 보였다. 즉 자녀가 4명인 경우 부양 의무감이 높고 부양 행동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결혼상태는 가족주의 가치관과 부양행동에 유의한 차이를 보여 가족주의 가치관은 아버님이 생존한 경우가 가족주의 가치관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어머니 생존, 두분 생존의 순으로 나타났다. 부양행동의 경우 어머니만 생존한 경우 부양행동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수입정도는 부양 의무감, 부양행동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부양 의무감의 경우는 '겨우 유지', '여유있다', '적당하다'의 순으로 부양 의무감을 덜 느끼며, 부양행동의 경우 부모의 수입이 없는 집단이 현저하게 부양행동을 많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부모의 수입이 적을수록 부양 의무감을 많이 느끼며 부양행동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교는 종교의 유무에서 가족주의 가치관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즉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가족주의 가치관이 높게 나타났다.

직업은 직업의 유무에서 가족주의 가치관, 부양 의무감, 부양행동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즉

직업을 가지고 있는 기혼 여성이 가족주의 가치관의 부양 의무감이 높으며, 직업을 가지고 있지 않은 기혼 여성이 부양행동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것은 취업중인 중년여성은 노부모에게 도움을 주는 정도가 적다는 Lang과 Brody(1983)의 연구와 일치한다.

출생순위는 부양 의무감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즉 차녀보다 장녀가 부양 의무감에서만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맨위로 태어난 장녀가 그 집안에서 부모를 부양하게 되는 책임감과 가치관을 지닌 것으로 볼 수 있다.

며느리 순위는 다른 것에는 차이가 없어도 부양행동과 유의한 차이를 보여 첫째 며느리가 둘째 이하 며느리 보다 더 많은 부양행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우리나라는 아직도 노부모 부양은 장남이 하는 경향을 나타낸 것으로 생각되며 우리의 현실에 있어 장남에 의해 부모부양 체계가 유지되고 있다는 김태현(1981), 이효재(1979)의 연구와 일치함을 보인다.

동거여부는 가족주의 가치관, 부양 의무감, 부양행동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가족주의 가치관의 경우는 동거일 경우 가족주의 가치관이 별거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양 의무감과 부양행동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중년여성의 노부모부양에서 노부모와 동거할수록 부양을 많이한다고 볼 수 있다.

4. 시가와 친가 및 연령의 분류에 따른 부양 의무감, 부양행동과의 차이

〈연구문제 3〉 시가와 친가 및 연령의 분류에

표 3. 시가와 친가에 따른 부양의무감, 부양행동에 대한 차이검증

구 분	변 인	부양의무감	부양행동
시 가 (N=259)	M	3.71	3.26
	SD	0.68	0.73
친 가 (N=293)	M	3.69	2.89
	SD	0.52	0.61
t 값		0.58	6.54

*P<.05 **P<.01 ***P<.001

다른 부양 의무감, 부양행동은 차이가 있을 것인가?

표 3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부양 의무감은 시가와 친가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부양행동에는 유의한 차이를 보인다. 즉 부양행동은 시가 경우가 친가 경우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부양 의무감은 시가와 친가의 구분이 없고 부양행동에 유의한 차이를 보임으로써 부양 의무감에는 시가와 친가의 차이가 없으나 시가쪽에 부양행동을 더 많이 하는 것을 보여준다.

다시 말하면, 부양 의무감에서는 의식의 변화에 따라 시가와 친가의 구별이 없으나 부양행동에서는 아직도 전통성이 남아 시가에 부양행동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볼수 있다.

연령에 따른 부양 의무감, 부양행동을 알아보기 위해 연령별로 구분해 보았을때 표 4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부양 의무감은 연령에 따라 시가와 친가로서 두 경우 모두 그 차이가 유의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양 의무감은 시가의 경우 40대, 50대, 30대 순이고, 친가의 경우 40대, 50대, 의 순으로 시가, 친가의 경우 순서가 같음을 알 수 있으며, 40대가 가장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즉 연령이 많은 층에서 부양 의무감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아 나이 많은 층의 기혼여성이 노부모 부양에 대한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부양 의무감을 간직하고 있다고 엿볼 수 있다.

부양행동은 시가와 친가의 경우 모두 그 차이가 유의적으로 나타났는데 시가의 경우 50대, 40대, 30대 순이고, 친가의 경우 50대, 40대, 30대의 순

으로 연령이 많을수록 시가, 친가 모두 부양행동을 많이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연령이 많을수록 부양행동을 많이 한다는 송현애(1986)와 Lang과 Brody(1983)의 연구와 일치한다.

5. 시가와 친가에 따른 사회인구학적 변인, 가족주의 가치관, 부양 의무감 부양행동의 인과적 관계

〈연구문제 4〉 시가와 친가에 따라 사회인구학적 변인, 가족주의 가치관, 부양 의무감, 부양행동에는 어떠한 관계가 있을 것인가?

연구문제 4를 규명하기 위하여 사회인구학적 변인(종교, 교육수준, 동거여부, 부모의 결혼상태, 부모의 건강상태, 부모의 수입정도), 가족주의 가치관, 부양 의무감이 부양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가를 파악하기 위하여 변인들간의 단순상관계수, 회귀분석, 경로분석 등을 실시하였다. 변인들의 Pearson의 적률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각 변인들의 상관관계가 높지 않으므로 다중 공선성(multicollinearity)의 문제는 배제되었다고 본다.

그림 1에서 제시한 연구모형을 토대로 변인간의 인과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상관계수를 시가, 친가별로 산출하였다.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시가의 경우 부양 의무감, 교육수준, 동거여부, 부모의 결혼상태, 부모의 수입으로 부양 의무감, 부모의 수입은 정적관계로 나타났으나 교육수준, 동거여부, 부모의 결혼상태는 부양행동에 부적관계를 보였다.

부양 의무감에는 가족주의 가치관, 교육수준, 동거여부, 부모의 수입으로 가족주의 가치관의

표 4. 연령에 따른 부양 의무감, 부양행동에 대한 변량분석

변 인	구 분	시 가				친 가				
		연 령	빈도	평균	F	D	연령	빈도	평균	F
부양 의무감	30대	139	3.61	3.57*	B	30대	121	3.59	3.48*	B
	40대	74	3.85		B	40대	100	3.84		A
	50대	46	3.82		A	50대	72	3.67		BA
부양행동	30대	139	3.12	6.28***	B	30대	121	2.76	5.83***	B
	40대	174	3.37		A	40대	100	2.88		BA
	50대	46	3.50		A	50대	72	3.04		A

*P<.05 **P<.01 ***P<.001 D : Duncan's grouping

표 5. 시가 대한 사회인구학적 변인과 부모부양에 관한 변인들간의 상관관계 (N=259)

변 인	1	2	3	4	5	6	7	8	9
1. 부양행동	-								
2. 부양 의무감	0.39 ***	-							
3. 가족주의가치관	0.33 ***	0.45 ***	-						
4. 종교	0.02 ***	0.15 ***	0.15 **	-					
5. 교육수준	-0.40 ***	-0.37 ***	-0.31 **	0.02	-				
6. 동거여부	-0.53 ***	-0.23 ***	-0.18 *	0.15 *	0.17 **	-			
7. 부모의결혼상태	-0.14	-0.11	-0.05	0.09	0.21 ***	0.19 **	-		
8. 부모의건강상태	-0.10 **	0.08 *	0.10	0.08	0.18 **	0.13 *	0.18 **	-	
9. 부모의수입	0.28 ***	0.16 *	0.00	0.02	-0.35 ***	-0.23 ***	-0.40 ***	-0.34 ***	-

*P<.05 **P<.01 ***P<.001

부모의 수입은 정적인 관계로 나타났으나 교육수준, 동거여부는 부양 의무감에 부적관계로 나타났다.

가족주의 가치관에는 종교, 교육수준, 동거여부로 종교는 정적인 관계로 나타났으며, 교육수준, 동거여부는 가족주의 가치관계 부적관계로 나타났다.

친가의 경우(표 6), 부양행동에는 부양 의무감, 교육수준, 동거여부, 부모의 건강상태, 부모의 수입으로 부양 의무감, 부모의 수입은 정적관계로 나타났으나 교육수준, 동거여부, 부모의 결혼 상태는 부양행동에 부적관계를 보였다.

부양 의무감에는 가족주의 가치관, 교육수준, 부모의 수입으로 가족주의 가치관, 부모의 수입은 정적관계를 나타냈으나 교육수준은 부양 의무감에 부적관계를 보였다.

가족주의 가치관에는 종교, 부모의 건강상태로 종교, 부모의 건강상태는 정적관계로 나타났으나 교육수준은 가족주의 가치관에 부적관계를 보였다.

표 5, 6에서 제시된 상관계수는 두 변인간의 총체적 관계만을 나타내 주므로, 중다회귀분석을 통한 경로계수(Path coefficient)에 의해 좀더 세분된 변인간의 효과를 살펴보기 위하여 본 연구의 가설적인 인과 모형에 따라 사회인구학적 변인, 부양 의무감, 부양행동 변인에 대하여 중다회귀 분석을 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7, 8에 나타난 바와 같다.

표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시가측면에서 살펴보면 가족주의 가치관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교육수준, 동거여부, 종교, 부모의 건강상태의 순으로 이러한 모든 변인들이 가족주의 가치관을 설명해

표 6. 친가 대한 사회인구학적 변인과 부모부양에 관한 변인들간의 상관관계 (N=293)

변 인	1	2	3	4	5	6	7	8	9
1. 부양행동	-								
2. 부양 의무감	0.30 ***								
3. 가족주의가치관	0.07 ***	0.34 ***							
4. 종교	0.04 **	0.03 ***	0.21 ***						
5. 교육수준	-0.18 ***	-0.36 ***	-0.28 *	0.07					
6. 동거여부	-0.33 ***	-0.07 *	-0.02 *	-0.05	0.01 **				
7. 부모의결혼상태	-0.13 *	0.05	-0.00	0.07	0.17 **	0.18 **			
8. 부모의건강상태	0.05 ***	-0.00 *	0.12 *	-0.03	0.08 ***	-0.20 ***	0.07		
9. 부양의수입	0.24 ***	0.13 *	0.03	-0.07	-0.41 ***	-0.18 **	-0.44 ***	-0.15 *	

*P<.05 **P<.01 ***P<.001

표 7. 시가에 모델에 사용된 변인들의 회귀분석표

시가(N=259)

독립변인	가족주의가치관		부양의무감		부양행동	
	b	β	b	β	b	β
종교	0.19	0.16**	-	-	-	-
교육수준	-0.43	-0.31**	-0.04	-0.21***	-0.04	-0.21***
동거여부	-0.19	-0.17**	-0.16	-0.11*	-0.70	-0.42
부모의결혼상태	-	-	-	-	-	-
부모의건강상태	0.08	0.16*	-	-	-	-
부모의수입	-	-	-	-	-	-
가족주의가치관	-	-	0.66	0.47***	-	-
부양 의무감	-	-	-	-	0.33	0.32***
R ²	.16		.36		.46	

b=비표준화된 회귀계수 β =표준화된 회귀계수

*P<.05 **P<.01 ***P<.001

* 명목측정 변인들은 가변수화(Dummy화 하여 통계에 사용하였다.)

종교유무 : 유(1), 무(0)

동거여부 : 별거(1), 동거(0)

부모의 결혼상태 : 두분생존(1), 한분계심(0)

부모의 건강상태 : 항상아픔(1), 자주아픔(2), 가끔아픔(3), 아주건강(4)

부모의 수입 : 여윈다(1), 적당하다(2), 겨우유지(3), 없다(4)

주는 정도는 16%이었다.

부양 의무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가족주의 가치관, 교육수준, 동거여부, 부모의 건강상태 순으로 나타났으며 모든 변인들이 부양 의무감을 설명해 주는 설명력은 36%이다. 부모의 건강상태가 좋고, 동거를 하며, 가족주의 가치관이 높고,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부양 의무감이 더 높게 나타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부양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동거여부, 부양 의무감, 교육수준의 순으로 나타나고 이러한 변인들이 부양행동을 46%정도 설명해 주고 있다. 다시 말하면 부양행동은 교육수준이 낮고, 동거를 하고, 부양 의무감을 많이 지닌 경우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같은 회귀분석의 결과를 기초로 하여 시가의 가족주의 가치관, 부양 의무감, 부양행동에 관련된 변인의 인과모형을 그린 결과는 그림 2와 같다.

이상에서 시가의 경우 가족주의 가치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교육수준, 동거여부, 종교의 순으로 나타났다.

부양 의무감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직접적인 변인은 가족주의 가치관, 교육수준, 동거여부 순으로 나타났다.

부양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변인은 동거여부, 부양 의무감, 교육수준 순으로 나타났다.

부양 의무감은 인과적효과 및 총체적관계가 가장크게 작용함을 알 수 있는데 변인들 중에서도 부양 의무감이 다른 변인들을 통제한 상황에서 부양행동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 즉 부양 의무감이 클수록 부양행동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8에서 보는바와 같이 친가측면에서 살펴보면 가족주의 가치관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교육수준, 종교 부모의 건강상태 순으로 나타났으며 모든 변인이 가족주의 가치관을 설명할 수 있는 설명력은 10% 이었다. 종교를 가지고 있고, 교육수준이 낮으며, 부모의 건강이 좋은 경우에 가족주의 가치관이 더욱 높음을 알 수 있다.

부양 의무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교육수준, 가족주의 가치관 순으로 나타났고 그 설명력은 19% 이었다. 부양 의무감은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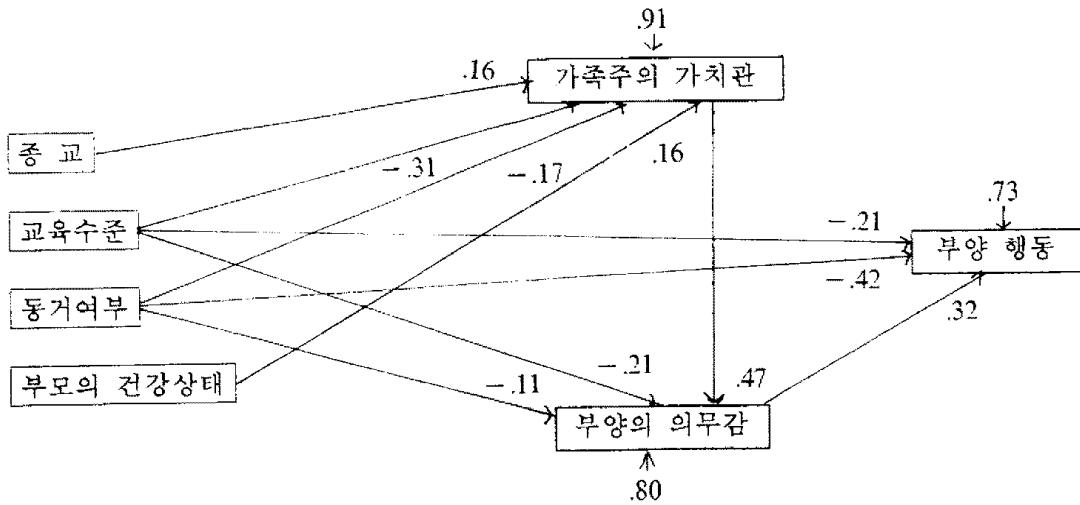


그림 2. 시가의 부양의 어려움에 관한 인가모형.

*그림의 외부화살표시는 잔차효과로서 $\sqrt{1-R^2}$ 로 계산된다

가족주의 가치관이 높을수록 더 높게 나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부양행동에 미치는 변인은 부양 의무감, 동거 여부, 부모의 수입 순으로 나타났으며 그 설명력은 23% 이다. 동거를 하고, 부모의 수입이 적으며, 부양 의무감이 높은 경우 부양행동은 더 많이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회귀분석의 결과를 기초로 하여 친가의 부양의 어려움에 관련된 변인의 인과모형을 그린 결과는 그림 3과 같으며 $P < .05$ 유의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회귀선만 표시 하였다.

이상에서 친가의 경우 가족주의 가치관에 가장

표 8. 친가에 모델에 사용된 변인들의 회귀분석표

종속변인	가족주의가치관		부양의무감		부양행동	
	b	β	b	β	b	β
종교	0.25	.23**	-	-	-	-
교육수준	-0.04	-.31**	-0.05	-.29***	-	-
동거여부	-	-	-	*	-0.58	-.33***
부모의결혼상태	-	-	-	-	-	-
부모의건강상태	0.08	.15*	-	-	-	-
부모의수입	-	-	-	-	0.07	.15*
가족주의가치관	-	-	0.36	.26***	-	-
부양 의무감	-	-	-	-	0.28	.30***
부양행동	-	-	-	-	-	-
R ²	.10		.19		.23	

b=비표준화된 회귀계수 β =표준화된 회귀계수

* $P < .05$ ** $P < .01$ *** $P < .001$

* 명목측정 변인들은 가변수화(Dummy화 하여 통계에 사용하였다.)

종교유무 : 유(1), 무(0)

동거여부 : 별거(1), 동거(0)

부모의 결혼상태 : 두분생존(1), 한분계심(0)

부모의 건강상태 : 항상아픔(1), 자주아픔(2), 가끔아픔(3), 아주건강(4)

부모의 수입 : 여유했다(1), 적당하다(2), 겨우유지(3), 없다(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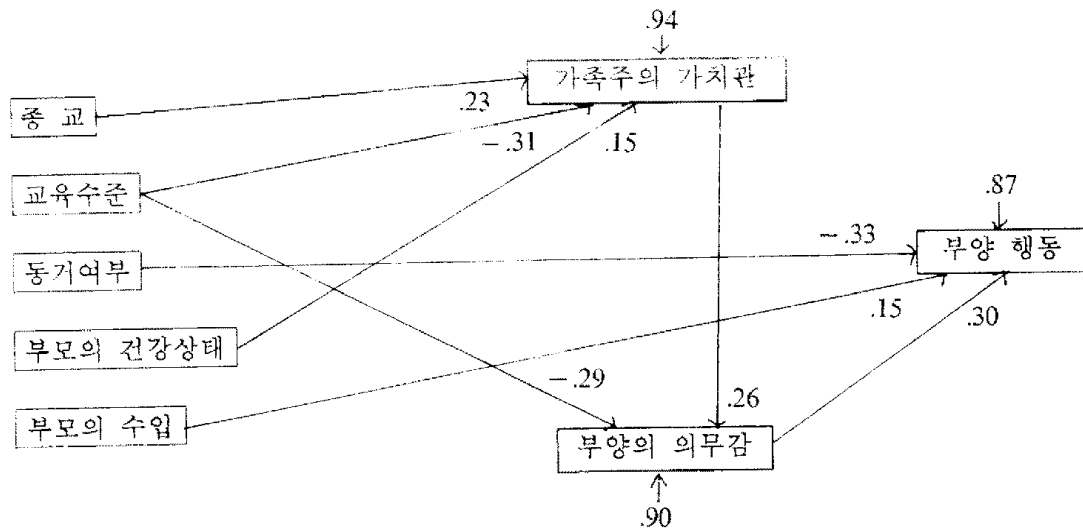


그림 3. 친가의 부양의 어려움에 관한 인과모형.

*그림의 외부화살표시는 잔차효과로서 $\sqrt{1-R^2}$ 로 계산된다.

큰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교육수준, 부모의 건강 상태 순으로 나타났다.

부양 의무감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직접적인 변인은 교육수준, 가족주의 가치관 순으로 나타났다.

부양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변인은 동거 여부, 부양 의무감, 부모의 수입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양 의무감은 부양행동과 가장 높은 총체적 관계를 갖는데 인과적 효과도 월등히 높음을 알 수 있다.

VI.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변화하는 현대사회에서 기혼여성의 가족주의 가치관, 노부모 부양 의무감과 부양행동의 관계를 보려고 하였다. 즉 가족주의 가치관과 부양 의무감이 어떻게 노부모에 대한 부양행동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를 보고자 하였다.

나시말해 근대화 이론이 시사하는것 처럼 사회가 발달할수록 가치관이 가족중심적 집합주의에서 개인중심적 개인주의로 변화하여 부모에 대한 부양 의무감이 약화되고 그에 따라 부양행동에 영향을 주었을 것인가, 아니면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가족주의 가치관이 유지되어 노부모에 대한 부양 의무감이 변하지 않고 그에 따라 부양행동에 영

향을 끼치지 않았는가를 보고자 하였다.

노부모 부양에 직접적인 참여를 하는 30대, 40대, 50대 기혼여성을 대상으로 가족주의 가치관, 부양 의무감, 부양행동이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밝히고 아울러 시가와 친가에 따라 가족주의 가치관, 부양 의무감, 부양행동의 관계에 대하여 살펴 보았다.

가족주의 가치관이 전체적으로는 높으나 교육수준이 높고, 연령이 낮으며, 소득이 많이 높은 층에서 가족주의 가치관이 낮게 나온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근대화의 개개인의 가치와 의식수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연령층이 낮고,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가치체계의 변화가 일어나 가족우선 중심의 가족주의 가치관으로 부터 개인 중심의 개인주의로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부양행동에 있어서도 가족주의 가치체계가 개인주의로 변화하여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본다. 즉 가족주의 가치관이 집합주의에서 개인주의로 흐름으로써 기혼여성의 노부모 부양 의무감도 적게 나타나고 동시에 부담감을 느낌으로서 부양행동도 적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러한 가치체계의 변화는 시가, 친가에 대한 부양의식에 변화를 가져와 노부모부양에 대한 부양 의무감이 시가, 친가의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결과는 기혼여성은 시부모만 부양한다는 전통적인 가치규범에서 상당히 벗어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부계가족의 우선성에 대한 가치관의 쇠퇴로도 볼 수 있다.

부양행동은 친가와 비교하여 볼때 시가에 대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시가의 부양행동에 영향을 준 것이 동거여부, 부양 의무감, 교육수준의 순이고, 친가의 부양행동에 영향을 준 것이 부양 의무감, 동거여부, 부모의 수입의 순으로 시가, 친가 상관 없이 부양 의무감이 높을수록, 동거하는 경우, 부양행동이 많았겠다는 결과는 전통적인 효사상 즉 부양 의무감의 영향이라고 볼 수 있다.

시가, 친가 모두 동거하는 경우에 부양행동이 많은 것은 부모부양이 주로 동거하는 여성에게만 부과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따라서 부모와 동거하는 여성에게만 부양의 과중한 부담이 나타나는 경향으로 보아 앞으로 노부모부양의 방향에 있어서 동거하는 자녀만 아닌 분거하는 자녀들로 부양을 분담하는 방안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또한 노부모에 대한 부양행동이 시가, 친가 모두 가족주의 가치관과 부양 의무감이 매개변수로 작용하여 부양 의무감에 따라서 노부모 부양행동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때 전통적인 효 관념이 노부모 부양의 행동을 높였다고 본다.

비록 연령이 낮고 교육수준, 소득수준이 높은 계층에서 가족주의 가치관이 개인주의적으로 변화하였을지라도 가족주의 가치관의 부양 의무감에 의해 노부모 부양행동에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할 수 있다. 이런 현상은 이론적인 측면과 정책적인 측면에서 중요한 함의를 내포하고 있다.

이론적으로 볼때 본 연구의 결과는 근대화 이론의 단점을 증명하였다고 본다. 근대화 이론에 의하면 근대화 할수록 노인의 지위는 하락되고 가족의 노인부양은 어려울 것이라고 예측하여 근대화에 따른 노인의 지위를 부적적이고 직선적인 함수관계로 예측하였고 나라마다 가지고 있는 사회적 규범이나 가치관에 따른 변화를 보지 못하였다.

가족주의 가치관과 노부모 부양 의무감의 매개

역할로 인하여 노부모 부양행동이 달라졌다는 것은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효사상의 고취의 영향으로 볼 수 있다. 결과적으로 근대화가 계속될 수록 노인의 지위가 하락되는 것이 아니라 가족에 우선적인 가치를 두는 가족주의 가치관과 부양행동이 지속될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노인부양정책에 있어서 우리 정부의 기본 입장은 "선 가정 후 복지정책"이다. 가족주의 가치관과 부양 의무감이 부양행동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쳤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우리나라의 이런 효사상의 고취와 가족에 의한 부양을 우선한다는 노인부양정책과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끝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을 밝히며 후속연구를 위하여 몇가지 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서울시에 거주하는 기혼 여성의 연령을 30대, 40대, 50대로 한정하고 있어서 다른 지역과 미혼여성이나 20대 기혼여성에 대해 일반화하는데는 무리가 있다.

둘째, 본 연구 결과는 노부모 부양에 대하여 기혼여성을 대상으로 가족주의 가치관과 부양 의무감, 부양행동을 다룬 선행연구가 부족한 가운데 나온 결과 이므로 우리나라 기혼 여성의 노부모 부양에 대한 연구의 기초적 자료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셋째, 본 연구에 사용된 측정도구는 표준화 된 것이 아니므로 도구의 타당도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기혼여성의 가족주의 가치관과 노부모 부양에 관한 측정도구의 개발을 위하여 기초적이고도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넷째, 본 연구에서는 기혼여성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노부모 부양에 관해 부부를 대상으로 한 비교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참고문헌

- 1) 김명자(1980). 가족관계에 대한 주부의 가치의 식변동에 대한 연구 - 강원도 동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관동대학 논문집 8 : 453-470.
- 2) 김일명(1988). 기성세대와 대학생의 가족생활에

- 대한 가치의식의 비교연구,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3) 김태현(1981). 한국에 있어서의 노인부양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4) 김해운(1977). 현대사회와 노인문제에 관한 연구 - 대구시를 중심으로한 사회교육적 고찰 -,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5) 문숙재·임정빈(1988). 가치성향 의사결정양식 및 가정생활만족 -서울시 주부를 중심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6(1) : 149-166.
 - 6) 서병숙(1986). 부모노후의 책임의식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 6 : 53-87.
 - 7) 서병숙(1988). 노후적응에 관한 연구 : 생활만족도 및 가족의 교류도를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8) 송현애(1986). 부양을 중심으로 한 노모-성인 자녀관계에 대한 조사연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9) 옥선화(1988). 한국인의 가족주의가치에 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10) 우미경(1988). 노후부양의식에 관한 연구 -서울시에 거주하는 기혼자를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11) 유영주(1978). 한국가족의 가치관계 변화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논문집 3 : 15-29
 - 12) 옥영수(1982). 가족주의가 지역사회에 대한 태도가 미치는 영향-결속성, 발전 지향성 및 참여성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13) 이연주(1984). 한국가족의 변화에 관한 일 연구 -태도조사를 통하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2) : 101-112.
 - 14) 이영하(1975). 노인문제와 그 해결을 위한 방안, 공주사범대학 논문집 13.
 - 15) 이옥재(1980). 한국도시노인에 관한 연구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의 비교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논문.
 - 16) 이정덕(1985). 한국의 전통적 가족윤리에 대한 고찰, *한국가정관리학회지* 3(2) : 171-186
 - 17) 이효재(1971). 도시인에 친족관계, 서울 : 한국연구원.
 - 18) 이효재·지순·박민자(1979). 한국 저소득층 노인생활에 관한 사회 경제 및 공간문제 연구, 이대논총 34.
 - 19) 임인혜(1987). 한국 청소년의 노인부양의식에 관한 연구 -서울시내 일부 고등학생 및 대학생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20) 임춘희(1987). 분거한 도시장남부부의 부양의식 유형 -세대간 유대관계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21) 임의섭(1987). 사회변동과 가치관 서울 : 정음사.
 - 22) 장인섭·최성재(1987). 노인 복지학 서울 : 서울대학교 출판부.
 - 23) 장현희·유영주(1987). 시간적 차원에서 본 가족의 가치관 연구, 서울대학교 가정대학논문집 3 : 31-46.
 - 24) 최성재(1984). 현대화와 한국노인의 가족에로의 사회적 통합, *사회복지학회지* 5 : 145-165.
 - 25) 최신덕(1982). 노인부양과 규범의 정립, 핵가족화와 노인복지 세미나 보고서.
 - 26) 최재석(1975). 한국가족연구 서울 : 민중사.
 - 27) 한국연구보건의연구원(1985). 한국노인의 생활실태, 서울 : 한국인구보건의연구원.
 - 28) 허훈(1988). 한국대학생들의 노부모에 대한 가족부양의식에 관한 조사연구, *한국노년학* 8 : 89-106.
 - 29) Adams, B.N.(1970). Isolation, Function and Beyond : American Kinship in the 1960'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32 : 375-397.
 - 30) Atkinson, M.P., Kivett, V.P. & Campbell, R.T. (1986). Intergeneration Solidarity. *Journal of Gerontology* 41 : 408-416.
 - 31) Bengtson, V.L. & Gultler, N.E.(1976). Generation and Intergenerational Realties : Perspectives on Age Groups and Social Change. *Handbook of Aging and the Social Science*, (eds) Binstock, R. M. & Shanahan, E., N.Y. : Van Nostrand Reinhold Co. : 130-155.
 - 32) Bengtson, V.L., Dowd, J.J., Smith, D.H., & Inkeles, A.(1975). Modernization, Modernity, and Perceptions of Aging : A Cross-Cultural Study. *Journal of Gerontology* 30(6) : 688-695.
 - 33) Cowgill, D. & Holmes(1972). *Aging and Modernization*, Appleton Century-Crofts, New York : Meredith Corporation : 13.
 - 34) Lang, A.H. & Brody, E.M.(1983). Characteristics of Middle-Aged Daughter and Help to Their

- Elderly Mother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5 : 193-201.
- 35) Lee, G.R.(1980). Kinship in the Seventies : A Decade Review of Research and Theory.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2 : 923-934.
- 36) Lopata, H.Z.(1978). Contributions of Extended families to the Support Systems of Metro Politan Area Widows : Limitation of the Modified Kin Network.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0 : 355-364.
- 37) Neugarten, B.L.(1975). Future and the Yung-old. *Gerontologist* 15 : 4-9.
- 38) Palmore, E.B. & Manton, K.(1974). Modernization and station of the aged : International Correlations. *Journal of Gerontology* 29 : 205-210.
- 39) Shanas, E.(1980). Older People and Their Families : Yhe New Pioneer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0 : 9-15.
- 40) Stoller, E.P(1983). Parental Caregiving by Adult Cildren.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5 : 851-857.
- 41) Townsend, P.(1963). The Family Life of Old People, Baltimore MD : Penguine.